



목동들의 경배(부분), 휴고 반 데어 구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제1독서] 이사 60,1-6

[제2독서] 에페 3,2.3.5-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 11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알렐루야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 하리이다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복음] 마태 2,1-1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7] 동방의 세박사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86]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100] 동방의 별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묵상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은 “주님께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듯,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원하면 모든 이가 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뵈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고,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멀리서 낙타를 몰고 금과 유향을 선물로 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내시어,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도 목자 몇 명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예언자 시메온과 만나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 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이 그분을 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로데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땅이 좋은데 왜 하늘을 올려다보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보다 늘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오직 메시아만을 보려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돈과 시간을 들여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천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보이면, 보이는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포르티나리 제단화 <목동들의 경배>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탄생의 최초 목격자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이라고 전한다. 북유럽 벨기에 출신인 휴고 반 데어 구스(Hugo van der Goes 1440-1482)의 <목동들의 경배 Adoration of the Shepherds>는 포르티나리 세족 제단화(Adoration of the Shepherds with angels and Saint Thomas, Saint Anthony, Saint Margaret, Mary Magdalen and the Portinari family)의 중앙 패널이다. 플랑드르의 명작인 이 작품은 이탈리아 대가들의 최고 걸작들이 포진하는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한다. 벨기에 브뤼헤의 메디치 가문 은행 대표로 피렌체에서 파견된 토마소 포르티나리는, 그의 집안이 1288년에 설립한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누오바 (Arcispedale of Santa Maria Nuova) 병원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가족 예배당 장식을 위해 세족 제단화를 주문하였다. 목동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일화를 전하는 마태오(2:1-12)와 루카복음서(2:1-20)의 내용으로, 성모영보, 엘리사벳의 방문, 동방박사들의 경배 등과 기독교 미술의 중요한 주제로 수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다시 한 번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다. 휴고 반 데어 구스는 거대한 세족 제단화의 중앙 패널에 이 장면을 선명하게 묘사하였다. 좌측 날개는 위임자 포르티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순교 당한 창을 든 토마스 사도, 돼지를 키워 가난한 이를 도왔던 안토니오 성인은 돼지를 부르는 종을 들고 있다. 우측 날개의 부인과 딸 뒤로 연고병을 든 마리아 막달레나와 자신을 삼킨 용을 밟고 있는 승리자 마르가리타 성녀는 플랑드르에서 유행한 의상과 머리스타일을 따른다. 그림에 기증자를 그려 넣는 것은, 당대 흔한 미술적 관습으로 예술가를 후원하는 정책이었다. 배경 화면은 연속적 내러티브를 삼부작의 내레이션을 연결해 중앙 화면을 강조한다. 왼쪽 배경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등록을 위해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의 팔에 의지해 베들레헴으로 귀향한다. 가운데 패널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목동들이 경배하고 있다. 오른쪽 배경은 말을 탄 동방박사들과 시종이 농부에게 길을 묻고 있는데, 이 패널을 닫으면 성모영보 도상이 탄생한다. 관람객은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그리스도와 목격자들을 상호 연결시켜 전달하는 세족 제단화에서 구세주의 오심을 명확하게 읽는다.

지상의 맨 바닥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 주위로 발산하는 빛은 태양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빛이다. 무릎을 꿇고 갓 태어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의 유명한 환상에서 온 모티프다. 소박한 모습으로 경배드리는 목동들의 생생한 표정과 동작은



<목동들의 경배> 1477-1478 목판에 유채화 274 x 652 cm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아버지 요셉과 수많은 천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다. 북유럽 회화의 백미인 숨은 상징과 사실적이고 섬세한 세부 묘사는 전경의 정물에서 은밀하게 드러난다. 흰색 백합과 붉은색 붓꽃은 동정녀의 순결과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흘리는 피를 암시한다. 자주색 매발톱꽃과 떨어진 꽃잎은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대변하며 세 송이 카네이션은 삼위 일체를 상징한다. 화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신비로운 육화의 증인으로 초라한 목동들을 드라마틱하게 등장시킨다. 그는 대규모의 제단화에서 다양하고 명백한 장면으로 심오한 영적 세계를 고양시키며 풍요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관람객은 사회적 중요도와 종교적 계층 구조를 반영하는 인물들의 크기와 비율로 중세적 화법을 이해한다.

휴고 반 데어 구스는 비인기 주제였던 목동들의 경배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며 그의 대표작이 되었고 위대한 화가로 등극한다. 1483년 최초로 해상을 통해 피사에 도착해 아르노 강을 따라 피렌체로 옮겨진 웅장한 세족 제단화는 큰 이목과 찬사를 받으며, 이탈리아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정통 플랑드르 회화의 유화 기술뿐만 아니라 생생한 색조와 정밀한 디테일은 동시대인들을 매혹시키며 종교적 감흥을 환기시켰다.

목동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 탄생은 이방 민족인 동방 박사들의 경배로 이어지며 공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동방교회에서 유래된 주님 공현 대축일은 4세기부터 서방교회로 전파되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태어난 아기 예수는 곧 인류 구원을 의미한다.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육화되어 사람으로 오시는 인성을 의미하며, 주님 공현 대축일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관람객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을 지나 아기 예수로 오신 하느님의 신비와 인류 구원을 위해 신성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한다.**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예수님은 인류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모두 평화를 위해 봉사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그리고 매년 1월 1일에 지내는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공동선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 후 8일째 되는 날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을 지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처럼 어머니께, 그리고 어머니께서 품에 안고 계시는 아기에게 눈길을 고정시킨 채 머무릅시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모든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각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하느님의 선하심(bontà, 좋으심)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좋은(buono) 한 해가 될 이 해에 모든 남녀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사실, 요즘 서로 주고받는 모든 축하인사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례는 이스라엘의 사제들이 백성을 축복하던 아주 오래 된 축복문을 전해 줍니다. 잘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24-26). 이것은 아주 오래된 축복문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을 세 차례 “주님” 이라고 반복하면서, 모여 있는 백성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름은 (은혜를 구하며) 부르는 그 실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가족 위에, 어떤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는 것은, 그분에게서 솟아나는 은혜로운 힘을 그들에게 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축복문에서는 “얼굴” 을, 주님의 얼굴을 두 번 거명합니다. 사제는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 백성에게 “들어 보이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에게 자비와 평화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그 누구도 하느님을 보고 나서 살아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그분 영광의 무한한 위대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사랑이시며, 따라서 범접할 수 없으면서도 바라볼 수 없는 태양처럼, 그 은총을 모든 피조물 위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이 더 잘 반영되는 남녀 인간들 위로 비추어 줍니다.

“때가 차자” (갈라 4,4) 하느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 예수의 얼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오늘 축일의 이콘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느님의 어머니 이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인류 가족 전체에게 축복이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의 샘이십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1월 1일이 세계 평화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시다” 를 주제로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을 지냅니다. 정치가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보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도시” (사회)의 삶에, 공동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도 평화를 위한 봉사에서 자기 몫을 하는 정도에 따라 좋은 정치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이 일상의 임무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Santa Madre di Dio)” 를 세 번 부르면서 그분께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

<h☒ps://www.va☒cannews.va>

전례 · 교리

전례력의 가·나·다해 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체를 알려 주고자 성경 독서를 알맞게 배정하는데, 주일과 축일에 성경의 주요 부분을 3년 주기로(가해, 나해, 다해), 평일에는 2년 주기(홀수해, 짝수해)로 적절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연중 시기의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의 주요 부분을 3년 동안에 다 들을 수 있게 ‘가해’에는 마태오 복음서를,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서를, ‘다해’에는 루카 복음서를, 연중 제2주일과 ‘나해’의 연중 제17-21주일에는 요한 복음서를 읽도록 하였습니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그 전례 시기와 조화를 이루는 복음을 읽습니다.

주일 미사의 제1독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읽고,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을 봉독합니다. 제1독서는 그날 복음의 주제와 일치하는 성경 본문이 배정됨으로써 신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면서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독서는 신약 성경의 시간이나 요한 묵시록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에서는 1년 동안에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도록 하고, 독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을 2년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홀수해와 짝수해로 나누어 급속적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순, 대림, 성탄, 부활 시기의 독서는 전례 시기의 특징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와 함께 미사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풍부한 식탁을 마련하고자 성경의 보고를 널리 개방하고, 회중들에게 성경의 주요 부분을 일정한 햇수 안에 낭독하도록 위와 같은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전례 헌장 51항 참조). <미사 전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본당 송년 잔치

2018년을 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송년잔치가 지난 12월 28일 (금)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해마다 본당 송년잔치를 주관하고 다양한 행사에 봉사하는 단체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단체부는 매년 송년잔치를 각 단체별로 메뉴를 정해 주차장과 친교실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는 신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를 지향하며 친교실에서만 진행했다. 신자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송년잔치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새해엔 이런 사람이

이해인 수녀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홀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공현
대축일



동방 박사를 주님께 이끈건
하늘의 커다란 별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별빛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 임의준 신부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1월 6일(일) 오전 11:30(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월 6일(일) 오후 1시(B-1)

3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1월 6일(일) 오후 1시(B-3,4)

4 2018년 교무금 납부 안내

• 2019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공제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5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복자부 주관)

• 동전 저금통을 주님 공헌 대축일(1월 6일)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6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월 6일(일), 13일(일), 10시 미사 후(A-1,2)

7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일시: 1월 11일(금) 오후 7:30, 미사 후 묵주기도

8 1월 공동체 기도회

• 일시: 1월 12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시다.

9 단체장 회의

• 일시: 1월 13일(일) 오전 11:30(B-3,4)

10 꼬미시움 월례회

• 일시: 1월 13일(일) 오후 1시(B-1,2)

11 성경 필사 5년 계획(2017-2021년)

• 성당 창설 30주년(2017년)을 맞아 다짐했던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성경(구약과 신약)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성경 필사 주간 계획표가 주보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2 2019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 수호 행진이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실시됩니다.
• 일정: 1월 18일(금) 오후 12시, 성당에서 출발(점심제공)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인원: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1월 13일까지(친교실, 사무실)
• 문의: 사무실 (703)968-3010

13 알링턴 교구 Life is VERY Good 이벤트

• 일정: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7:30 - 10시
• 대상: 6학년 - 8학년
• 장소: Eagle Bank Arena
4500 Patriot Circle, Fairfax, VA 22030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이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님 공헌 대축일 주간: 1 마카 1-3, 로마 1-2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10일(목) 오후 5:00-6:00
1월 11일(금) 저녁 8:00-9:00
1월 13일(일) 아침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임 따라 한평생(1) - 신앙인의 표양을 보여주는
이병호 빈첸시오 전 전주교구장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2월 30일(성가정 축일)

주일헌금 \$7,961.00
교무금 \$18,93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1,780.00
특별헌금 \$2,520.00
2차헌금 \$0.00
합계 \$41,19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석(요한),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희순(젠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윤백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마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감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6일(일)	주님 공헌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 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A-3)
7일(월)	주님 공헌 대축일 후 월요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8일(화)	주님 공헌 대축일 후 화요일	아침미사(오후 7:30, 성당), 성경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로로 기쁨모임(오후 8시)
9일(수)	주님 공헌 대축일 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시30, 친교실), 아침미사(오전 11시, 성당)
10일(목)	주님 공헌 대축일 후 목요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1일(금)	주님 공헌 대축일 후 금요일	아침미사(오후 7:30, 성당), 성소를 위한 미사(오후 7:30, 성당), 바로로 형제모임(오후 8시)
12일(토)	주님 공헌 대축일 후 토요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월 13일(일)	주님 세례 축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오전 11:30, B-1,2), 25주년 자문위원 회의(오전 11:30, A-3,4)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마키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영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